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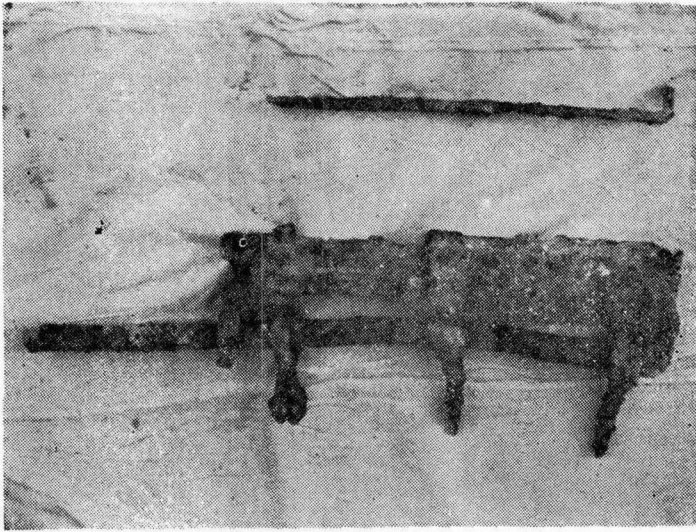
飾變形된 것인지 萬若 그렇다면 그淵源이 어디 있는지에 對하여는 한 번 考察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 크기는 다음과 같다.

前輪 幅	四〇・五 cm	高	二五 cm
後輪 幅	五六・五 cm	高	三〇 cm

〔附記〕 「前輪」 「後輪」 「海」 「磯」等 日本通用語를 그대로 使用하였다

百濟鐵製鎖金

洪 思 俊



五月初旬 扶餘郡 教育課主管으로 扶蘇山美化的 一環策으로 軍倉址를 中心해서 三忠祠에서 雙北里後麓을 斜線을 그어 散策路를 開拓하는데 (扶蘇山의 門外城址 안 쪽으로) 俗稱 매재골을 에워싼 羅城의 東部城(뒤개)便 若干低陷된 地點에서 百濟當時의 것으로 볼 수 있는 鐵製鎖金具 一切가 路面作業中出土 되었다. 이 鎖金은 百濟國이 滅亡하

던 때에 木造建物인 城門이 消失되고 城門에 달았던 鐵製의 鎖具만 地下에 一千餘年이나 埋沒된 것으로 推測된다. 當時 銘文瓦와 釜鼎으로 볼 수 있는 鐵片도 城門附近에서 若干 出土되었다.

四角진 자물통에 혀(舌)가 달린 자물쇠가 끼었는데 자물통머리에는 ㄱ字로 둥근 鐵棒을 (長一・一七尺 東魏尺一尺에 近) 붙여 만들고 자물쇠 後尾에는 角진 鐵板에 圓孔이 뚫려서 자물통 鐵棒이 꿰여 있다. 이 자물통 鐵棒에는 아직 도 門板木에 꽂아졌던 門쇠 二個(한개 鐵을 휘어 兩端이 尖한)와 다른 한쪽 門쇠가 달려 있다. 그리고 열쇠를 집어 넣어서 열 수 있는 구멍이 자물통 머리 下部에 一字로 뚫여 있다. 이 鎖金이 出土된 附近에서 다시 열쇠로 볼 수 있는 (長六・九寸) ㄱ字 鐵片이 나왔었다. 위와 같이 確實히 扶蘇山城 城門址에서 千三百年前의 百濟鎖金具가 發見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 그러나 日政時에 扶蘇山에서 出土되었다는 同形의 鐵製鎖金의 一部分을 扶餘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음을 아울러 紹介한다.

昌慶宮 明政殿의 墨書銘

申 榮 勳

都提調「右議政 鄭昌行」例兼提調「兵曹判書 朴承宗」工曹判書 李尙毅「戶曹判書 李廷龜」提調「禮曹判書 李爾瞻」判尹 李冲「戶曹」 糸判張晚「刑曹糸判」 兵曹糸判 李「中使」花城君 趙龜時「內侍府 尙膳 金逸」 都廳「司「寺」趙有道「言正郎 權弘道」——以下十行未詳—— 李欽「主簿 趙」 鄭敏「判事」 李「韓濟演」 義「奉事 具」 洵「豊儲倉奉事 鄭文晦」 前 奈奉 李晨英「前司」 李義崇「前司」 金權「萬曆四十四年二月 (向右侧합각머리內側, 長九尺, 高一・一尺의 板子에서 發見, 墨書, 楷字, 字徑一寸一九六三年六月 明政殿及 同廻廊 重修時 發見)